



코스피 2088.06 (+20.01)	코스닥 681.38 (+9.82)
금리 (미국 3년) 1.93 (+0.01)	환율 (원/달러) 1129.20 (-5.10) (15일)



[G-STAR 2018]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신작 게임 대거 공개
08·09

삼바 고의분식 결론, 회계업계 거센 후폭풍 “원칙중심 IFRS 왜 도입했나, 당국이 기준 만들라”

금감원이 판단 나서면 감사현장 대혼란 초래 “美 회계기준처럼 규정중심체제로 돌아가야”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차라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전의 세세한 룰 베이스(rule-base)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15일 바로 거래가 정지된 것은 물론 증장세를 받은 회계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원칙 중심의 IFRS가 오히려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을 묶어매는 형국이다.
감독당국의 잦아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회계처리 사

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졌다. 원칙중심(네거티브방식)의 IFRS는 규정중심(포지티브방식)과 달리 큰 틀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회계 위주로 내몰리고 있다. 마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찍 도입한 IFRS가 상장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됐다.
◆ “감사현장 혼란 불가피”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위반을 놓고 2015년까지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봤다. 과징금 1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돼 15일 주식이 거래 정지됐다. /연합뉴스

7000만원 부과와 함께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등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바뀔 확률은 크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당시 감사인이었던 안진이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비하면 수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지적이다.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실을 숨겼던 과거 전통적인 분식회계와 달리 이번엔 회계처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IFRS의 특성 때문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하나하나 세세한 규정을 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달리 IFRS

는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이후 그 근거만 충실히 제시하면 된다”며 “이번처럼 판단 자체를 당국이 하려고 나설 경우 감사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이럴 바엔 당국이 모두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는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단하기 나름...이의제기하기 어려울 것”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을 놓고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이것이 회계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메트로, '수능문제 및 답안 수록' 특별판 발행... 수험생에 배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 앞에서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 수능 특별판에 실린 답안지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어·수학 신유형 출제 체감 난이도 높았을 것”

2019 수능 난이도 분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치러졌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전년 수능과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과 전년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신유형 문항이 적지 않아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난이도는 상위권은 쉽게, 중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유지할 정도의 난이도로 분석됐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이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어 영역에서는 26번, 31번, 42번, 11번이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다. 작년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34점, 1등급컷 94점, 만점자 비율이 0.61%로 어려웠다. 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31번 문항은 과학 지문이 두 면에 걸쳐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험생들이 26번~31번 문항을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 뒤에 나온 문제 풀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매우 쉬웠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물론 다소 까다로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작년 수능(94점 추정)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영역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현장교사로 참여한 조만기 판교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등을 어떻게 해결하

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이라며 “수학 나형에서 21번, 29번, 30번, 21번과 29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학기형에 대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전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수학나형에 대해서는 “전년(만점자비율 0.11%)과 비슷하게 출제돼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1~2등급대 학생들에게는 다소 쉽게, 3등급대 이하 학생은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수능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전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59만 4924명이 도전했고, 이 중 재학생은 44만 8111명, 졸업생 등은 14만 6813명이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

CJ제일제당, 美 식품업체 ‘쉬완스’ 2조원에 인수

그룹 사상 최대 해외 M&A K푸드 확산 美 플랫폼 확보



CJ제일제당이 미국 전역에 걸친 식품 생산·유통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K-Food 확산 플랫폼’을 확보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미국 냉동식품 전문기업 ‘쉬완스 컴퍼니’를 전격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CJ제일제당은 이사회를 열고 쉬완스 컴퍼니를 총액 18억 4000만달러(약 2조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인수 이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장을 위해 기존 대주주로부터 지분 20% 재투자를 유치했으며, 적자사업부인 ‘홈 서비

스’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무 부담을 낮췄다. 이 중 13억 4000만달러(약 1조 5000억원)는 CJ헬스케어 매각대금 등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5억 달러(약 5500억원)는 쉬완스 컴퍼니의 자체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양사는 기업결합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쉬완스 컴퍼니는 지난 195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설립된 냉동식품 전문업체로 전국 단위 냉동식품 제조 인프라와 영업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내 17개 생산공장 10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자, 파이, 아시아안애플타이저 등 시장에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과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툰다. 올해 매출은 2조 3000억원(홈 서비스 사업 제외), 상각전이익(EBITDA)은 2460억원의 성과가 예상된다.
이번 인수로 CJ제일제당은 세계 최대 가공식품 시장인 북미를 본격 공략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우선 CJ제일제당이 기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오크하이오 등 5곳에 보유한 생산기지가 4배 이상인 22개로 대폭 확대된다.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물

류·유통·영업망도 동시에 확보된다. 이에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채널에 집중되어 온 ‘비비고’ 등 기존 CJ제일제당 브랜드 제품들이 북미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등으로 올해 미국 시장에서 4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이 예상된다.
기존 만두, 면 중심의 간편식품 목도 피자, 파이, 애플타이저 등 현지에서 대량 소비되는 카테고리도 확대되면서 향후 한식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가늘고 길게’ 원하는 직장인들... “승진? 노 땡큐”

일의 목적 ‘재밌게 살기 위해’ 1위
‘경제적 풍요를 위해’ 30%로 2위
‘위라벨 중시 문화’ 승진기피 불러
승진=퇴직 인식에 ‘거부권’ 요구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승진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위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함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짧고 굵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거다.

◆위라벨 포기 못 해!

지난 4월 부산시교육청은 ‘중등장학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재공고를 냈다. 미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충북, 서울에서도 장학사 지원자가 모집 정원보다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대가 보수적이라 여겨졌던 교육계에 ‘승진 기피’ 현상을 불러왔다. 위라벨 우선주의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감지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6년 임금협상에서 일반직과 연구직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했다. 사진은 집회하는 현대차 노조. /연합뉴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인 직장인 16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복수응답)가 좋은 직장의 기준으로 ‘위라벨이 유지되는 직장’을 선택했다.

‘급여 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이 뛰어난 직장’(59.4%),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직장’(46.3%)이 뒤를 이었다. 연봉, 명예, 직위보다는 위라벨이 우선이라는 뜻

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생산성본부가 올해 봄 입사한 신입사원 16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어떤 직책까지 승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사장’이라고 답한 비율이 1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조사가 시작된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알하는 목적을 묻은 질문에서는 ‘재밌게 살기 위해’가 41.1%로 1위를 차지했고, ‘경제적 풍요를 위해’(30.4%), ‘자신을 시험하고 싶다’(10%)가 뒤를 이었다. 또 ‘짧아서 고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서 고생할 것까지는 없다’는 응답이 3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라벨 때문에 승진을 기피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 일본사람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이 승진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승진=퇴직

현대차 노조는 2016년 임금협상에서 일반직과 연구직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에는 ‘전례 없는’, ‘기상천외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승진은 퇴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람이 모자라 정년까지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어 업무 부담이 많은 임원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일본의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직장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관리직으로 이상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61.1%나 됐다.

직장인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이다’가 71.3%로 1위를 차지했다. ‘업무량이 늘어나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65.3%, ‘부하를 관리하거나 지도할 자신이 없다’는 57.7%를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관리직 간부가 부하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업무를 대신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일이 있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사원을 감독하는 관리자는 근무 규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노동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대상에 관리직을 포함해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DDR5 D램 개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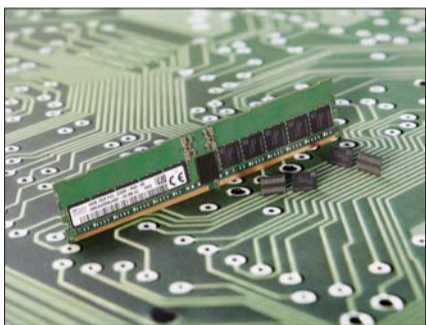
41.6기가바이트 1초만에 처리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국제반도체표준협회의기구(JEDEC)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DDR5 D램은 2세대 10나노급(1y)과 동일한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진 다.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더 빠른 처리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동작전압은 1.1V로 DDR4 대비 0.1V 낮췄다. 전력 소비량은 30% 가량 줄었다. 전송속도는 5200Mbps로 DDR4(3200Mbps)보다 1.6배 빨라졌다. 41.6기가바이트를 1초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읽기·쓰기 회로를 최적 상태로 조정하는 고속 트레이닝 기술과 전송 잡음을 제거하는 DFE, 명령어 및 데이터 처리를 병렬화하는 4페이지 클로킹



SK하이닉스는 세계최초로 JEDEC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등이다.

칩셋 업체에 제공한 제품은 서버와 PC용 RDIMM 및 UDIMM이다. 셀영역 단위 관리 구역을 32개로 확장하고,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를 16개로 2배 늘리는 등 JEDEC 표준에 맞췄다. 칩 내부에 오류 정정회로를 내장해 고용량 시스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SK하이닉스는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연내 도시개발 지구 1만2천여 가구 붓물

용인·김포 등 수도권에 8개 단지
지방에 3개 단지 5223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1곳, 1만2222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용인 신봉지구, 김포 신곡지구, 수원 망포지구, 성남 대장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단지, 6999가구다. 지방은 경남 김해 내덕지구, 대전 도안지구, 전남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등 3개 단지, 5223가구 규모다.

도시개발지구는 대규모 부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도심과 인접해 있다. 민간업체와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 공공 택지 지구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 특히 수

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거주무기기간 최대 5년, 전매는 최대 8년으로 제한 받는 9·13부동산대책이 이달 말 시행 예정으로 도시개발지구(사업)는 비교적 규제가 덜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이라며 “일반적으로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물량만이 공급되는 만큼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도시개발지구에서 물량을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74㎡·84㎡, 447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363가구, 오피스텔 84실이다. 비규제지역이자 9·13대책 미착용 단지로 전매제한이 6개월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北 대화로 이끈 것, 韓·美의 강력한 동맹”

文 대통령-펜스 미 부통령 면담
“곧 2차 북미정상회담 이뤄질 것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도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오늘 아침 트럼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택(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더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은 없고 인질들도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나눴다. 하와이에서 유해송환이 시작된 것을 목도한 것도 영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면담은 34분가량 진행됐다.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남관표 국가안보실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보좌관, 존 설리만 국무부 차관,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장기적으로 캐나다·멕시코 등 시장확대 기대”

>> 1편 ‘CJ제일제당, 미 스위트...’서 계속

한식의 맛으로 차별화한 다양한 아시아 안푸드(Asian Food)로 식품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인근 국가로의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각 사의 차별화된 R&D, 생산, 마케팅, 영업 등 모든 역량을 집결해 최적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스위트컴퍼니의 브랜드 경쟁력과 인프라에 자사 식품사업 R&D 역량과 한국 식문화 우수성을 앞세워 2025년까지 ‘아시아 HMR 대

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최대 마켓인 북미 공략을 통해 이재현 회장의 식품사업 철학인 ‘한국 식문화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그룹의 비전인 ‘월드 베스트(World Best) CJ’에 한층 다가가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거래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가의 평가는?

“상장폐지 없다… 거래 재개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종합적 평가로 상폐 가능성 제한적
빈자리 대안으로 삼성물산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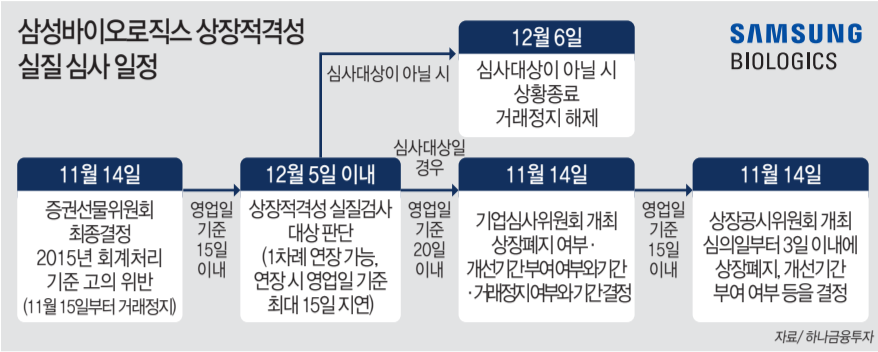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는 제한적’, ‘삼성바이오 거래정지, 투자심리 냉각시킬 여지’...

증권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정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의 방점을 찍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삼성물산이 당분간 채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연구원은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최종전(end-game)에 돌입했다’란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수 개월 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파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며 “거래재개 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주주들의 투자손실도 줄어들게 되어 모두가 승자인 게임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 의결을 앞두고 지난 13, 14일 이틀간 개미들은 삼



성바이오로직스에 베풀었다.

진 연구원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서 등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결국 상장폐지 안 되면 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였다”며 “그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의 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고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폐지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케이스도 예로 든 바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제도 심사를 받았지만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상장

폐지는 제한적이라는데 무게가 실렸다.

대신증권 홍가해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의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약바이오 부문으로

옮겨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았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잔존해 R&D 자산화 비중이 큰 회사는 상폐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9월 19일 금융감독원이 R&D 자산화와 관련된 관리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거래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500대 대표기업에서 제약·바이오 등 건강관리 업종의 시가

총액 비중은 9.2%(약 127조원)에 달하지만 내년 순이익 전망치에서 해당 업종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 증권사 김형렬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명령은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극도로 냉각시킬 여지가 있다”며 “산업에 대한 불신이 자칫 국내 증시 전체를 비관하는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으로 삼성물산이 주목받고 있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투자지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된다면 삼성물산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예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선위 결정에 숨죽인 회계법인

“법적대응 없을 듯… 결과 지켜봐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당시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 처벌수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증선위 제재에 대해 회계업계는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법적대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에 참여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과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을 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회계업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당시 금융위의 1년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딜로이트안진은 법적 대응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과징금이 따로 없는데다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없기 때문이다.

딜로이트 안진 소속의 한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 때와 달리 회사 분위기는 조용하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감사 신규 수임제한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제한이고,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어 굳이 회사가 법적대응을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합작계약서(JVA) 내용이 감사인 삼정KPMG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삼정KPMG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받은 징계수위는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썩지만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영업정지 조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회계감독 판단 어려운 IFRS, 시기상조 지적도

>> 1면 ‘원칙중심 IFRS 왜...’서 계속

한 공인회계사는 “IFRS는 회계처리 판단에 있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다”며 “당국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자료와 근거가 무엇인 지 알 수 없는 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삼성바이오가 질의한 회계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삼성바이오의 기존 회계처리 방향이 맞다고 했을지라도 증선위에 제시된 사실과 상황은 반대의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다”며 “IFRS를 적

용하는 환경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원칙 중심의 IFRS 도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한 공인회계사는 “어떤 회계기준을 선택했는지를 떠나 회계처리나 판단의 주체는 기업이며, 감사인은 절차가 제대로 됐지만 봐야하는데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를 보면 감사인이 회계처리의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IFRS 도입 전에 기업이나 감사인들의 인식이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고 역설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새롭게 진화하면
당신의 생활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품격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라이프스타일의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 줄
롯데캐슬의 전혀 새로운 진화
이제, 당신이 직접 누리실 차례입니다

NEXT CASTLE

카드 수수료인하, 소상공인-카드사노조 갈등 비화

“내려라” VS “죽는다”

소상공인 “대기업과 3.3배 차별적”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보장 등 요구

업계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 카드수수료 “대기업과 차별” vs “0.7%는 아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가맹점 카드수수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예고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 등 관련 기관과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올해 발표된 수수료 인하분 7000억원에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 3000억원까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놓고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은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고 카드수수료가 대기업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높으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 시 카드

91%로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서 적용된 평균 수수료율 2.08%에 비해 0.1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0.7% 카드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 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이라며 “지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가 변경되고 난 뒤에는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 마케팅 비용, “막대하다” vs “부담 전가 안 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으로 혜택을 보는 곳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6조원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마케팅 비용 조정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카드사 경영 실적에) 영향을 받겠지만 (비용 조정을) 하다 보면 순이익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협회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결산기준 6조7000억원으로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000억원의 50% 이상이었다. 특히 이 비용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실질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가맹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이 있기에 소비자편의를 키우고 시장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기준 마케팅

카드사, 3분기 당기순익 마이너스 “수수료 인하면 인력 감축 불가피”

팅비용 90%는 카드소비자 혜택에 사용되고 있고 순수 광고선전비는 3.4%(2083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vs “구조조정 우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뒤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0년간 9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현재 카드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협회는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카드결제금액과 결제비중 증가로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9%나 증가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협회가 인용한 금감원 통계는 감목목적에 따른 대손준비금 적립 후 기준으로 산출된 실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당기순이익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카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다. 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올 3분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천막농성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기순이익은 3207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7% 줄었다. 여신협회는 올해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당기순이익은 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25.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카드업계 종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 노조협의회장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카드 수수료에 전가할 경우 결국 피해가 전부 카드업계 종사자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은행, 수험생 ‘반가워 스무살’ 이벤트

우리은행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최신 노트북 등을 제공하는 ‘반가워 스무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2월 31일 출생한 고객 중 우리은행을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체크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그램노트북(3명), 최신 아이폰(5명), 에어팟(12명)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며, 이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실적 5만원당 1회씩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 응모자 전원에게 GS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시 사용가능한 3000원 쿠폰 1매를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최신 노트북, 핸드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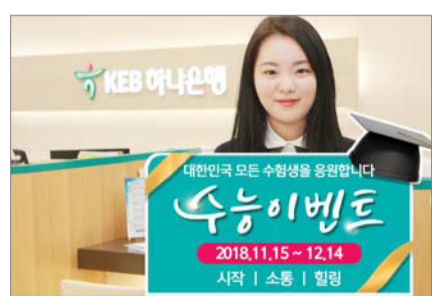
NH농협은행, 환율전망 세미나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고객 130여명을 초청해 ‘2019년 상반기 환율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미경 NH농협은행 자금운용부 부부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과 문영식 NH농협은행 외환·파생센터장(첫째줄 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외환·파생센터 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약저축 신규가입 수험생 ‘1만 하나머니’

KEB하나은행 ‘수고했어, 수험생!’

KEB하나은행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고했어, 수험생!’ 이벤트를 오는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KEB하나은행의 유스(Youth)브랜드 ‘영하나(YOUNGHANA)’와 연계한 이번 이벤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60만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힐링과 소통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 ‘Young하나 통장’과 ‘1Q Bank’ 앱 ▲ ‘Young하나 적금’ ▲ ‘도전 365적금’ 중 하나 이상을 신규가입 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 243명을 추첨해 1백만 원 상당의 ‘Young하나 장학금’, AIS피커,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의 시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가입하는 수험생 또는 학부모 2만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 하나

/김문호 기자 kmh@

선결제 골프장 상품 이용하면 7% 할인

Advertorial Corner

BC카드, 연말까지 이벤트 진행

BC카드가 연말까지 선결제 골프장 할인과 골프용품 할인 이벤트, 9만 9000원에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15일 BC카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예약서비스인 골프존 티스캐너(Tee Scanner)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결제 골프장’ 상품을 BC카드 결제할 경우 7% 즉시 할인(카드당 최대 2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결제 골프장’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진행해 골프장 이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골프장을 말한다. 선결제 골프장 확인과 할인 혜택 제공은 모두 티스캐너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골프장 예약을 원하는 고객은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티스캐너’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예약하면 된다.

11월 BC카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BC카드 회원이 10% 청구할인(카드당 최대 1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총금액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볼빅 트리플 소프트’ 골프공 1더즌도 받을 수 있다.

또 BC카드의 연말까지 매일 국내 명문 골프클럽에서 9만9000원에 라운딩(1)의 11월 접수를 시작했다.

16일부터 30일까지 BC카드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 ‘Paybooc(페이북)’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2일에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12월 31일까지 BC카드 골프 고객센터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면 된다.

/김희주 기자

반도체 강호의 고수들이 함께 살아가는 반도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옛날 강호의 협객들이 비급의 전수를 통해 새로운 무공을 탄생시키듯
SK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기술과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반도체 세상

SK하이닉스 최고의 경쟁력은 '상생'입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BMW리콜 속전속결, 석달새 77%… 일부 블랙컨슈머도

대차서비스 거부... '역이용' 과도한 보상금 요구 골머리

민관합조단과 화재 원인 이전 EGR밸브 누수 두고 갑론을박

리콜 기간	리콜 차량 수
8.20~8.31	1만1240대
9.1~9.30	3만270대
10.1~10.31	3만1880대

연쇄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지난 8월 20일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 여름 차량 화재로 인해 BMW가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다.

BMW코리아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다. BMW 코리아가 국내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리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리콜이행률 77% 넘어

15일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화재 관련 EGR 모듈 교체 리콜(시정조치)이 완료된 차량은 11월 14일기준 8만22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10만6000여대의 77%를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논란이 된 국내의 리콜 차별 논란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리콜의 경

우 통상적으로 1~2년이 지나도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 특히 이번 화재 이슈와 관련해 BMW코리아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실시, 리콜 전담 고객센터 및 전국 서비스센터 24시간 운영, 무상 렌터카 제공 등 전례 없는 전사적 대처로 수입차 업계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BMW코리아는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리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올해 안에 리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히 EGR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신차 교환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BMW코리아의 이같은 대응을 역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차서비스 종료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문제는 BMW코리아가 보상 정책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고객은 이를 거절하고 과도한 보상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MW코리아가 렌터카 대신 동급의 BMW대차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렌터카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이 3개월간 렌터카를 이용함에 따라 13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 중간 발표 논란 키워

BMW 차량 화재 논란은 최근 BMW 화재조사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 발표를 내놓으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차량의 또 다른 화재원인으로 'EGR 밸브' 문제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는 BMW가 애초에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한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조사단 실험 결과 BMW 차량 화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상태 ▲EGR 밸브가 일부 열림으로 고착된 상태에서 고속주행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 작동 등의 조건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EGR 쿨러 누수로 된 적된 침전물이 EGR 밸브를 통해 들어온

고온의 배기가스와 만나 불티가 발생하고 엔진룸 흡기시스템(흡기매니폴드)에 붙어 불꽃으로 확산돼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BMW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BMW 측이 현재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EGR 모듈에는 이미 EGR 밸브가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발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발적 리콜 중인 BMW 디젤 차량의 근본적인 화재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며 이는 이번에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중간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현재 리콜 작업은 EGR 밸브가 포함된 EGR 모듈 전체에 대한 교체이며 EGR 밸브, 바이패스 등은 화재의 주원인이 아닌 조건 중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는 "EGR 밸브는 EGR 모듈 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쿨러의 냉각수 누출이며,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이 연말 발표하는 최종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큐셀 中 최대 원전기업에 태양광 모듈 공급

CGN에 100MW 고효율 모듈

한화큐셀이 중국 국영 원자력 발전기업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

한화큐셀은 중국광핵집단지원공사(CGNC)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국 후베이성 통산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화큐셀은 100MW 상당의 고효율 단결정 모듈 '큐피크(Q.PEAK)'를 공급할 예정이다.

CGN은 1994년 설립된 중국 최대 원자력 발전기업으로 2017년말 기준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해 현재 총



중국 후베이성 통산현에 설치된 한화큐셀 큐피크(Q.PEAK). /한화큐셀

1.7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큐셀이 고효율 단결정 모듈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현대차, 드론 전략 투자... 혁신 모빌리티 강화

미국 드론기업 톱 플라이트와 맞선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발굴 기대

현대자동차가 미국 드론 분야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톱 플라이트 테크놀로지스(이하 톱 플라이트)와 손잡고 미래 혁신 모빌리티 대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톱 플라이트에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무인항공 드론(UAV) 시장이 2016년 56억 달러(6조 3420억원)에서 2019년 122억 달러(13조 8165억원), 2026년에는 221억 달러(25조 282억 5000만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차가 전략적 투자에 나선



톱 플라이트 직원이 기술인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형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톱 플라이트는 2014년 선림해 무인항공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스타트업회사다. 하이브리드 및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드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드론에는 기본 배터리 외에 소규모 기술인 엔진을 탑재, 비행 중 엔진을

가동시켜 배터리를 충전시킴으로써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재 톱 플라이트의 하이브리드형 드론은 4kg의 화물을 싣고 2시간 이상, 10kg 화물로는 1시간 이상 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뛰어난 장거리 비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톱 플라이트 측과 공동으로 고성능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혁신 분야로 꼽히는 드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발굴하는 한편, 고객에게 전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무인항공 드론이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군사용과 취미용이며, 상업용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양성운 기자

'금강산 관광 20주년' 현정은 회장 방북

(현대그룹)

현대그룹 4년 만에 남북공동행사

현대그룹이 오는 18일부터 1박2일간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15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방문동의서를 받아 방북 신청을 했고 이날 통일부로부터 최종 방북승인을 받아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20주년 공식 행사명은 북측과 협의해 '금강산관광 시작 20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로 정해졌다.

이번 행사에 현대그룹에서는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다. 외부 초청인사로 임동원, 정세현, 이종서, 김성재 전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



1998년 6월 정주영 회장 500마리의 소를 이끌고 북한으로 출발하는 모습.

지사 및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인영 남북경제협력특위 위원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중대 정의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한국관광공사, LH 등 현대아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동행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중국서 '혁신 AI 기술' 뽐내

'삼성 미래기술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뽐냈다.

삼성전자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 미래기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S부문 중국 총괄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바이두와 샤오미, 하이커비전 등 중국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현지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까지 500여 명이 참가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최철 삼성전자 DS부문 중국 총괄 부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 5G, 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삼성전자의 첨단 부품 솔루션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 미래기술 포럼'을 열었다.

/삼성전자

선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AI 산업이 다양한 협력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S.LSI,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각각 최신 기술을 공개했다. AI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는 'HBM2D 램'과 엑시노스9(9820), EUV 적용 7나노

공정 등 AI용 토폴 솔루션이 주목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참했다. 조연결사회에서 디스플레이 역할이 높아질 것이며, 삼성 OLED가 화질과 응답속도, 소비전력 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국제대학교



대림대학교

수도권 TOP 8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연성대학교

우리가 취업 해결사!

수시 2차 2018. 11. 06(화) ~ 2018. 11. 20(화)

정 시 2018. 12. 29(토) ~ 2019. 01. 11(금)

23만 관람객과 만들 게임열기... 지스타, 이젠 세계로!

2874 부스 기록 '역대 최대 규모' 메인스폰서도 외국 업체가 많아 현장 방문 안해도 트위터서 함께 '성덕' 찾는 채용박람회도 열려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8'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지스타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업체도 다수 참가해 게임 마니아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간 주춤했던 신작도 유명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도 대거 공개돼 박람회의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지스타 2018은 9월 기준, 2874부스를 기록해 지난해 최종 2857부스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지스타는 30개국 600여 업체가 참가해 덩치를 키웠다. 지난해에는 관람객 22만70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의 참가와 해외 기업의 참여로 관람객 2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스타의 공식 슬로건은 희망과 빛을 상징하는 '게임, 우리의 별이 되다'라는 의미를 담은 'Let Games be Stars'이다. ◆메인 스폰서도 해외 업체... 덩치 키우는 지스타

이번 지스타에서는 넥슨과 넷마블을 필두로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 게임사들의 하반기 시장 패권을



마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매년 역대급 라인업으로 지스타를 주도하는 넥슨은 올해도 최대 규모인 총 300부스를 마련했고, 모바일과 온라인을 포함한 총 14종의 게임을 선보인다.

넷마블 또한 지스타에서 조만간 출시되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등 모바일 게임 4종을 공개해 인산인해가 될 전망이다.

해외 기업들이 다수 참가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꾀한다는 것이 이번 지스타의 특징이다. 특히 '포트나이트'로 흥행에 성공한 에픽게임즈가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나서 올해 처음 지스타에 참가한다.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외국 업체가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스타 조직위는

글로벌 인지도를 자랑하는 해외 기업의 메인 스폰서 참여를 통해 지스타가 국내 축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XD글로벌 등 해외 기업들도 다수 참여한다. 아울러 홍콩과 대만,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 국가들은 사절단 형태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는 게임이 대세?...올해도 e스포츠 '풍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스포츠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와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는 양측 모두 게임 시연을 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하는 첫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KT5G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현장에서는 한국 대표 선발전 불거리가 펼쳐진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스타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도 진행된다.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하는 트위치 코리아는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출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다. 이외에도 넥슨과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넥슨 스튜디오', 인기 BJ의 스페셜 매치를 연다.

◆'성덕' 되불까...채용 박람회 참여 활발

게임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지스타의 게임 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16일부터 17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8 게임기업 채용박람회'는 지스타의 부대 행사로 게임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게임기업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채용 박람회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했고, 게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가 참여하는 커리어 강연 프로그램인 '커리어 토크'도 열린다. 네오위즈,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액토즈소프트, 펄어비스 등 국내외 기업들의 참가가 확정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귀여운 고전게임부터 화려한 신작까지

넥슨과 함께해온 게임의 역사를 한눈에



총 330부스 규모로 '업계 최대'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 협업 강화

올해로 14년째 지스타 출석 도장을 찍는 넥슨은 업계 최대 규모로 지스타 2018을 장식한다. BTC 300부스와 BTB 30부스, 총 330부스 규모다. 넥슨은 고유 지식재산권(IP) 모바일 게임 4종을 포함한 라인업 14종을 공개해 지스타를 신작 무대로 탈바꿈한다. 넥슨의 게임들과 앞으로 함께 할 넥슨의 새로운 게임이라는 의미를 담은 'Through Your Life'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넥슨은 14년 연속 참가의 노하우를 살려 최대한 많은 인원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시연존 ▲이벤트존 ▲NEXON STUDIO(인플루언서 부스) 등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전면 개방 구조의 부스를 마련한다. 총 623대의 시연 기기를 마련했고,

게임에 집중하도록 '좌식 시연존'을 구축하는 새로운 시연 방식을 시도한다. 시연존 뒤쪽 벽면에는 가로 50m, 세로 4m 크기의 '초대형 LED 영상면'을 도입했다.

부스 우측 앞쪽에는 '이벤트존'을 마련한다. '이벤트존'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아스텔리아'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어센던트 윈'의 SNS 이벤트, 플러스 친구 등록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넥슨이 내건 지스타의 슬로건은 'Through Your Life'로, 넥슨의 게임들과 앞으로 함께 할 넥슨의 새로운 게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 같은 슬로건에 부합해 넥슨은 지스타에서 눈에 띄는 신작을 대거 들고 나왔다.

넥슨은 자사의 흥행 온라인게임을 모바일로 재탄생시킨다. '바람의 나라'와 '크레이지 아케이드', '테일

즈위버', '마비노기'가 주인공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IP인 모바일 신작 '트라하'도 지스타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넥슨은 모바일게임과 함께 PC온라인 게임 신작도 지속적으로 개발, 서비스하며 탄탄한 라인업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넥슨 부스에서는 '프로젝트DH'로 알려졌던 액션RPG '드래곤하운드'를 최초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현재 열리역세스 중인 MOBA 장르의 '어센던트 윈'과 온라인 정통 MMORPG 신작 '아스텔리아'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또 지난해 출시한 '이블팩토리'와 '애프터 디 엔드'를 통해 특색 있는 개발팀으로 알려진 네오플의 '스튜디오포투(Studio42)'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 '데이프'와 '네 개의 탑'을 통해 넥슨의 신작 타이틀을 공개한다.

이외에도 넥슨은 TV 애니메이션 '런닝맨'을 토대로 만든 '런닝맨 히어로즈', 일



넥슨 지스타 버티컬월. /넥슨

러스트레이터 정준호 아티렉터가 참여한 '윈: 더 라이트브링어', '스피릿위시'를 시연 출품하고, 가상현실(VR) 배경의 어반 판타지 2D 캐릭터 수집형 게임 '카운터사이드' 영상을 공개해 다양한 장르와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지스타에서는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넥슨 부스 중앙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넥슨 스튜디오'가 마련된다. 15일 '트라하'

방송을 시작으로, 11종의 시연 출품작 방송이 이어진다. 대도서관, 도티, 테스터훈 등 유명 인플루언서의 전문적인 방송 콘텐츠로 현장을 찾지 못한 이용자도 지스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김나인 기자



바람의 나라·크레이지 아케이드·테일즈 위버

런닝맨 히어로즈·아스텔리아·트라하

블소 레볼루션·세나2... 기대작 미리보고 '인싸' 되자

〈블레이드&소울〉

〈세븐나이츠2〉

〈insider,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

netmarble

넷마블이 1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2018'에서 자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신작을 내놓는다. 현장에 오지 못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소통 창구로 넷마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넷마블관은 100부스 규모로, 모바일 게임에 특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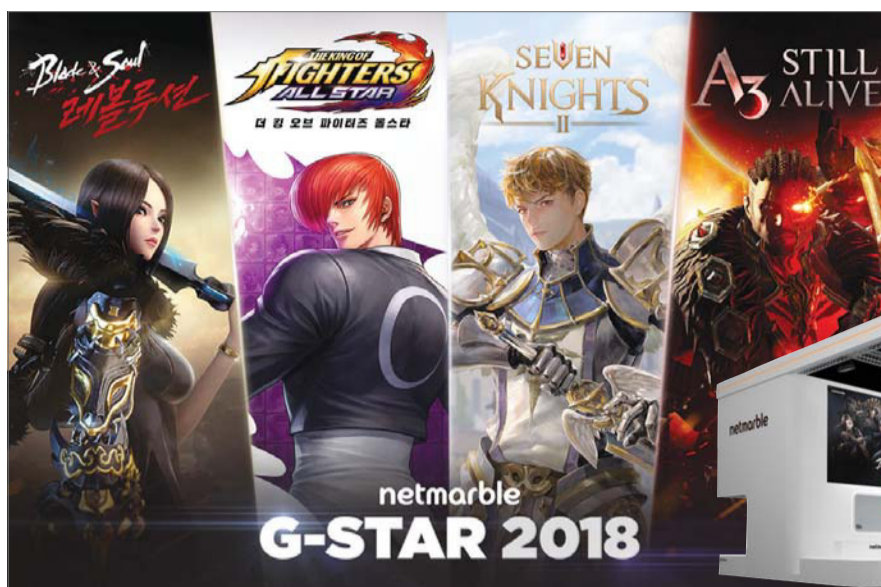
100부스, 260여 시연대 등 마련 SNS·코스프레 방문 이벤트 열려 공식 유튜브·페이스북서 생중계

260여대의 시연대와 대형 LED 스크린, 오픈형 무대가 마련됐다.

넷마블 부스에서 주목할 게임은 올 하반기 기대작인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이다.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은 PC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소울'의 IP를 활용했다. 내달 6일 출시 예정인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은 4차로 신규 서버 10개를 증설하는 등 이용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넷마블 부스에서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의 신규 캐릭터를 선보이고 광고모델로 선정된 모델 문기비가 방문해 게임과 관련된 퀴즈와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

지스타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A3: Still Alive(이하 A3)'는 모바일 최초 배틀로얄 MMORPG다. 전략과 컨트롤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배틀로얄 방식의 '전략 데스매치'와 동시간 전체 서버 이용자와 무차별 PK(Player Killing)를 즐길 수 있는 '전지역 프리 PK' 등 기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볼 수 없었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넷마블 '지스타2018' 출품작 이미지.

/넷마블

A3시연 부스에서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다. 또 인기 BJ·개발자와 진행하는 현장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인 '세븐나이츠2'는 지난 지스타에 이어 이번 지스타에서 게임 스토리를 일부 공개한다. 이용자는 시연빌드에서 스토리를 따라 퀘스트를 수행하며, 그룹전투와 화려한 액션 연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스타 기간 동안 매일 1회 세븐나이츠 2 버추얼 캐릭터 '렌'의 라이브 토크쇼도 열린다. 렌은 넷마블 부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등장해 게임을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퀴즈와 미니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객은 넷마블의 지스타 특별페이지에서 출품작 소개와 프로모션 영상, 부스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스타 현장에서는 11월 15일, 16일 양일간 넷마블 부스에 방문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스페

넷마블 '지스타2018' 부스 조감도. /넷마블

셜 쿠폰북, 넷마블프렌즈 자이언트 인형 등 선물을 증정하는 '얼리버드 이벤트'와 넷마블 부스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 시 넷마블프렌즈 무릎담요를 증정하는 '인플루언서 이벤트', 넷마블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 복장으로 넷마블 부스 방문 시 패스트 패스권, 럭키박스 등을 제공하는 '코스프레 이벤트' 등이 열린다.

넷마블은 부스내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해 넷마블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지스타 대장, 한국서 '포트나이트' 띄우기 출격



PC·플레이스테이션·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연 준비



'지스타 2018'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는 에픽게임즈는 지스타를 통해 국내 시장에 '포트나이트' 띄우기를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총 100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에픽게임즈 부스에서 관람객들은 PC와 플레이스테이션4,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기기 등 총 4개의 디바이스로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있다.

포트나이트는 출시 132일 만에 글로벌 동시접속자 340만명을 넘긴 흥행작이지만, 국내 이용자에게는 다소 생소하다. 에픽게임즈가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은 이유도 국내 이용자에게 포트나이트를 알리기 위해서다.

에픽게임즈 지스타 부스에서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악어, 풍월랑, 다주, 우정영, 서녕, 잉여맨 등 게임 크리에이터 총 20여명과 C9, 콩두 허스크, OP 게이밍, WGS 등 프로게임단 소속의 선수가 참여하는 '스트리머 브라더스 대난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춤추는 곰돌이 크루가 댄스 챌린지 공연을 진행하며, 유명 스트리머들이 미션에 도전하는 예능 교육방송인 '포나스쿨 라이브'도 현장에서 시청할 수 있다.

'레드로버', '텍스터스튜디오', '나인엔 인터랙티브' 등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파트너사 공간에서는 가상현실(VR), 축구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부스 2층 공간에는 파트너사 미팅이나 언리얼 엔진 개발자들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미팅룸이 마련돼 있으며, 쉴 수 있는 라운지 등이 운영된다. /김나인 기자

"배그 멸망전 볼까? 레이싱 해볼까?"



아프리카 유명BJ·방송인 등 경쟁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지스타에서 B2C 관에 100부스 규모의 전시관과 벡스코 야외 광장에 부스를 마련한다.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PC게임인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와 신작 모바일 레이싱 게임 '프렌즈레이싱'을 부스에서 만날 수 있다.

개방형 구조로 제작된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부스에서는 40인 대전 체험존과 상시 체험존을 운영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기다림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증강현실(AR) 포토존과 '배틀그라운드x 카카오프렌즈' 콜라베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MD숍, 신작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존도 구성한다.

15일과 16일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아프리카TV 유명 BJ 64인이 참가하는 멸망전 시즌5가 열린다. 17, 18일에는 인

기 BJ 주안코리아, 파이, 맛종육, 블랙위크, 방송인 유병재, 유규선, 정명훈, 문상훈이 출연하는 스포츠 매치가 개최된다. 이 매치는 유명인사가 조장이 돼 9명의 조원을 이끌고 생존 경쟁을 펼친다.

야외광장에서는 익숙한 카카오프렌즈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프렌즈레이싱 대전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프렌즈레이싱 부스는 레이싱카에 탑승한 라이언이 디자인 콘셉트다. /김나인 기자



블루홀, 게임 연합 '크라프트'와 만드는 게임의 미래



블루홀은 '지스타 2018'에서 게임 연합의 새 브랜드를 선보이고, 미공개 작품 일부를 공개한다.

블루홀에 지스타에서 선보일 새 브랜드 크라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크라프트는 '동서양에서 인정 받는 명작 게임을 만들고자 끊임 없이 도전하는 장인 정신의 가치'라는 의미를 담았다.

블루홀은 지스타에서 '크라프트 연합'이 도전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시한다. 크라프트 연합이 과거에 선보인

게임,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개발 중인 게임 30여 종을 구역 별로 선보인다. '크라프트 연합의 미래'에서 미공개 작

품 5종도 볼 수 있다. 블루홀은 이 중 개발 진척도가 가장 앞선 '프로젝트 BB'의 티저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프로젝트 BB는 유전을 소재로 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캐릭터 간의 결혼을 통해 외모와 능력이 유전된 캐릭터를 낳고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이와 함께 블루홀은 B2B관에도 부스를 마련한다. 공간 일부를 오픈형 라운지로 구성해 관람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위메이드, 이카루스·미르로 날개 펼친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스타 2018'에서 자사 '미르' 지식재산권(IP) 사업 확장에 나선다.

위메이드는 이번 지스타에서 '무한한 상상'을 슬로건을 삼고, B2B 전시관에 4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미르 IP를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전체 부스는 '피비우스피'를 형상화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위메이드서비스 각 20부스로 분리돼 있는 공간을 하나로 보이도록 통일성을 높였다.

양 부스는 위메이드의 기업 브랜드를

보여주는 '브랜드관'과 '이카루스M'을 비롯해 미르 IP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볼 수 있는 '콘텐츠관'으로 구성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출시된 신작 모바일 게임 '이카루스M'에 대해 내년 글로벌 출시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현재 대만과 일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르4', '미르M(열혈전기 HD)' 등 미르 기반의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미르' 기반 IP 공략을 가속화한다. /김나인 기자

한층에서 웃고르고 커피마시다 화장품 구매까지

신세계, 입점공식 파괴 “백화점 자체를 편집했어요”

신세계百, 4층 영캐주얼 매장에 화장품 편집숍 ‘시코르’ 오늘 오픈 맞은편엔 카페 겸 레스토랑 자리

백화점 입점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변신의 주인공은 신세계백화점의 ‘시코르’다.

시코르의 17번째 매장이 16일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선보이는 시코르는 영캐주얼 매장이 있는 신관 4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규모는 약 119㎡로 국내의 70여개의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았다.

시코르 맞은 편에는 카페 겸 레스토랑 ‘베키아에누보’가 자리잡고 있다. 의류매장 한 가운데에 카페와 화장품 편집숍까지 들어선 셈이다. 웃고르다가 커피마시고 화장품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코르가 들어서는 본점 4층은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3년엔 ‘4N5’라는 이름으로 신·본



강남점 시코르 매장

/신세계백화점

관을 연결해 하나의 콘셉트로 구성한 패션전문관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컨템포러리 패션을 한자리에 모아 젊은 고객들을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4층은 명품 매장이 즐비한 본관과 연결된다. 유행인구가 많은 ‘명당’ 층에 일부러 화장품 편집숍을 배치해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다. ‘1층 화장품, 2층 여성복’과 같은 백화점 입점 공식을 깨

고 트렌드를 반영한 MD 구성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시코르는 신세계 강남점에서 먼저 가격 실험을 시작했다.

화장품 매장이 몰려있는 1층 대신 5층 여성복 영캐주얼 매장 한복판에 입점했다. 이른바 ‘스파이스(Spice 양념)MD’로 다른 장르의 브랜드를 같은 층에 선보여 쇼핑객들의 입맛을 자극 하는 양념 같은

역할을 맡았다.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이은영 팀장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매장을 구성하는 스파이스 매장의 경우 해당 브랜드는 물론 주변 매출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시코르만의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이 여성복 매장에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코르 매장은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높다는 지역적 특성이 크게 반영됐다.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3CE, AHC, 파우, 클레어스, 라곰 등 K뷰티 브랜드의 비중을 기존 시코르 매장보다 약 20% 정도 늘렸다. 시코르 신세계 본점에 입점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 비중은 60%로 절반 이상이다.

오픈을 맞아 이벤트도 풍성하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 팝소켓, 10만원 이상은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시코르 리플렛을 지참 후 5만원 이상 구매 시 시코르 헤

이시트 마스크 1세트(5개)를 제공한다.

입점 브랜드 포니이펙트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럭키박스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에이지20s는 크렌징밤(15ml)을 주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시코르 자체 브랜드 제품 행사도 있다. 시코르 바디컬렉션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 품목을 20% 할인하고, 헤이시트 마스크팩도 같은 기간 동안 2+1 행사를 진행한다.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은 최대 4만2000원어치 제품이 담긴 럭키박스를 9000원에 준비했다. 30개 한정이며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한편, 17번째 매장을 낸 시코르는 플래그십 스토어, 로드샵, 미니 매장, 아울렛 등 다양한 형태를 선보이며 새로운 수요를 잇따라 창출하고 있다. 연내 20개까지 매장을 확대한 뒤 내년 4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표대비 매출 10% 초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홈맥족 증가에 편의점 맥주, 사계절 잘 팔린다

세븐일레븐

1~3월, 10월 평균매출 22.8% ↑
외산맥주 가격 경쟁력 등 기인

술 한잔을 마셔도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도 사계절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15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1~10월) 맥주의 월별 매출 지수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1~3월, 10월의 매출 지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맥주 매출 지수는 112.6으로 전년 보다 2.4%p 오르는 등 2년 새 4.0%p나 올랐다. 올해 초 겨울에도 매출 지수 상승폭은 평균 2.2%포인트에 달했다.

올해(1/1~10/31) 세븐일레븐 맥주는 전체 20.0%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9월 기간 평균 매출은 18.5% 오른 반면, 1~3월 그리고 10월은 평균 22.8%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이처럼 상대적 비수기간의 매출 증가



고객이 세븐일레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세가 뚜렷한 이유는 홈술 문화 확산에 따른 홈맥족 증가, 그리고 외산맥주를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 측은 밝혔다.

세븐일레븐 측은 52시간 근무제 정착 이후 가정에서 ‘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가운 맥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든 것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홈술 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가족 상권에서의 맥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븐일레븐 가족 및 독신 상권의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2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유흥가 등 기타 상권은 10%대에 머물렀다.

저가 외산 맥주의 출시와 균일가 행사의 정착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점도 주요 원인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5월 편의점 업계에서 유일하게 4캔5천원 맥주 상품인 스페인 정통 필스너 ‘버지미스터500ml’를 선보였다. 그리고 버지미스터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 8월엔 ‘라에스빠놀라500ml’를 추가로 선보였다. 이들 상품은 맥야함량이 70% 이상이고, 알코올 도수도 4.5~4.8%로 여타 맥주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가성비 높은 점이 장점이다.

실제 세븐일레븐의 4캔 5000원 시리즈는 소비자 입소문과 SNS에서 회자되며 한 때 공급량이 부족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세븐일레븐의 ‘버지미스터’와 ‘라에스빠놀라’는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양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갤러리아명품관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프트 아틀리에’ 오픈

갤러리아명품관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명품관 웨스트 5층에 크리스마스 관련 기획상품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아틀리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아틀리에(예술가의 작업장)’라는 콘셉트로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단독 상품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콜라보레이션 브랜드는 총 4개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마르니’,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메종 라비시’, ▲이탈리아 스타이셔너리 브랜드 ‘파브리야노’, 그리고 ▲국내 유일의 스카프 브랜드 ‘빙 딸리제’ 등이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명품관 웨스트 5층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기프트 아틀리에’ 매장에서 갤러리아 직원들이 관련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이탈리아 명품 ‘마르니’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소파백과 카드지갑으로, 마르니가 전세계 상품 중 갤러리아만을 위해 디자인한 플로럴 패턴이 연달과 새해의 설레임을 상품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면세점, QR코드 간편결제 도입

BC카드사와 제휴... 선불카드 증정

신세계면세점이 국내외 고객들의 결제 수단 및 QR결제 플랫폼을 다양화하기 위해 BC카드사와 제휴해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BC카드 QR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선불카드도 증정한다.

먼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간편결제 서비스 시범 기간 동안, 명동점과 강남점을 통해 각각 300달러, 150달러 이상 BC카드 QR결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불카드 1만원을 증정한다. 구매금액별 선불카드 증정 행사에도 중복 혜택이 주어진다.

11월 22일부터는 명동점, 강남점을 비롯해 부산점, 공항점 등 전 오프라인 지점



신세계면세점 QR코드 결제 이미지. /신세계면세점

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하며,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내년 1월 3일까지 선불카드 증정 프로모션도 계속할 예정이다. 명동점 또는 부산점을 통해 300달러 이상 QR코드 결제 시, 공항점과 강남점은 각각 200달러 이상, 150달러 이상 결제 시 선불카드 1만원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CU 백종원 도시락 리뉴얼 12찬 한판, 7찬 매콤불고기

편의점 CU가 출시 3년만에 ‘CU 백종원 도시락’을 전면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였다. ‘CU 백종원 12찬한판도시락’은 도시락 한 판에 다양한 반찬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상품 콘셉트에 맞게 지난 3년간 고객 반응이 가장 좋았던 반찬을 모았다. ‘CU 백종원 7찬매콤불고기도시락’은 매콤한 돈불고기볶음을 20% 늘리는 등 더욱 푸짐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서 기자



롯데百, 수험생 고객에 상품권·이벤트

18일까지 할인 행사 다채

롯데백화점이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상품권 증정, 상품 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에 한해 롯데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구매금액의 5%에 해당되는 롯데상품권 5000원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잠실점에서는 같은 기간, 수험표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식당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지하1층 식품관에 위치한 멕시칸 요리 전문점 ‘바토스’ 매장에서는 수험표 지참시 10% 할인을, 돈까스 전문점 ‘다이치’, 냉면 전문점 ‘봉피양’은 20% 할인을 진행한다. 2층에 위치한 T.G.I.F 매장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어니언 파스타’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주류, 대만 수출전용 피츠 육성재 패키지 출시

롯데주류가 중국과 대만 수출 전용 ‘피츠 육성재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피츠 육성재 패키지’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국가에 한정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피츠’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육성재의 모습을 제품 전면에 담았다.



피츠 육성재 패키지 /롯데주류

오는 18일 선적하는 중국 수출 초도 물량은 약 5만 캔(355ml)으로 11월말부터 중국 광둥, 상해,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12월에는 대만에도 약 10만 캔 분량의 ‘피츠 육성재 패키지’를 수출할 예정이다. /백인용 기자



NEW TECHNOLOGY FORUM

제3회 뉴테크놀로지 포럼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09:00 - 11: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 1~2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행사개요 및 문의

행사명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주 제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9:0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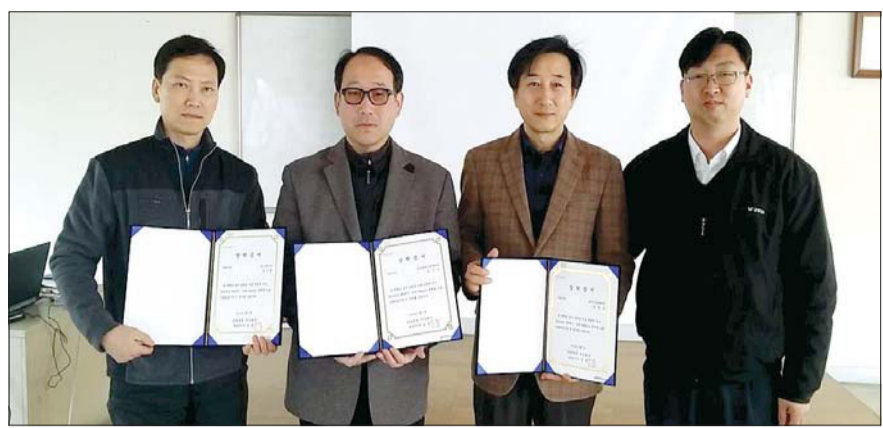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 최 :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5만원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 721-9826



남양유업, 대리점주 장학금 6억 돌파 남양유업 대리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누적 6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장학금 복지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대리점 상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학금 복지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마련된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은 대리점주 자녀는 모두 477명이며, 금액으로는 6억원을 돌파했고, 출산장려금으로 17개 대리점에게 총 51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남양유업



롯데하이마트, 파트너사 동반 '김장나눔 봉사활동' 진행 15일 서울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김민숙 관장, 삼성전자 연경희 하이마트영업그룹장, 대우전자 유우석 B2C영업담당, 롯데하이마트 하영수 MD전략부문장, 롯데하이마트 조준석 상품개발부문장, 롯데하이마트 황영근 가전부문장, LG전자 안전철 전략법인실장, 대우위니아 김석곤 전략영업담당,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이 김치를 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건보공단 서울본부, 남북하나재단과 손잡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14일 서울본부 스마트회의실에서 남북하나재단과 양 기관 포괄 상호협력 교류관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진중호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발달장애인을 위한 '2018 JW 아트 어워드'

JW중외제약 복지재단, 시상식 개최

가을의 끝자락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축제가 열렸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2018 JW 아트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JW 아트 어워드'는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 기업이 장애 미술인을 대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공모전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꿈퇴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만 16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순수미술과 일러스트레이션 2개 분야의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차 접수된 작품 229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본상 수상자 8명을 선정했으며, 총 1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로는 종이꾼으로 재건축 현장을 그려낸 조영배 씨(21세, 자폐성 장애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종호 이사장(오른쪽)이 대상 수상자 조영배 씨에게 '2018 JW 아트 어워드'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급)가 선정됐다. 대상작 '크레인1'은 오늘의 작가로 성장하게 한 과거의 소중한 시간과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강선아 씨는 최우수상, 이진원·정성원 씨는 우수상, 박혜신·이규재·김영빈·이다래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30명이 입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외학술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 작가들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금리결정과 한은



강영문의 세상읽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금융완화 정책(저금리정책)은 그동안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장기화는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가격 급등(저금리의 금융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 금융기관의 목표수익 달성을 위한 위험선택적(risk-taking) 영업행태 확산(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은 해외자산투자 증가), 한계기업(부실장후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내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3·6·9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12월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신중국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가 지난해 2~3%대에서 3~4%

중반으로 상승해 가계의 금리부담이 커졌다. 또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외국자본의 흐름(외국인증권 투자가 9월 이후 처음 순유출로 전환)이 바뀌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일방향적(금리인상 쪽)으로 쏠리고 있어 금융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변경여부와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 전망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시장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 시장상황은 저금리정책기조의 말기(금리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인상'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되는 경향 발생)인데 다 앞으로도 미국이 2~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참가자들의 군집심리에 따른 기대(금리인상)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장·단기 금리간 재정부재(arbitrage·차익거래)는 단절되고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정

책시그널 전달 등)이나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나머지 시장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종할 경우 시장의 단견(국민경제적 이해보다는 일시적인 개인정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을 수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이 경제의 펀더멘털(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장상황은 시장참가자들이 각종변수의 움직임으로 부터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예측해 시장에 금리변경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확산되어 있는데다 내년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11월 8일 FOMC회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금융불안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앞으로 실물경제여건과 금융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금리정책결정에 있어서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확산과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불안 위험의 누적 등이 비중있게 고려되었으면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메트로신문 전문위원

부동산 이중매매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Q. A는 B로부터 C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는데, 그 후 C 아파트 인근에 급행철도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아 C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A에게 C 아파트를 팔기 싫어졌다. 그리고 때마침 D가 C 아파트를 6억 원에 사겠다고 한다. 이에 B는 A에게 'C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으니,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기 바란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겼고, A는 갑자기 C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 하는 B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 B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A의 고소로 B는 처벌될 수 있을까?

A.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전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같은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부동산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 즉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특히 A가 C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경우라면 더 그렇다. 다시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문제부터 모든

일이 꼬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한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죄로서(형법 제355조 참조), 부동산 이중매매를 이유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은 최근에도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만약 B가 A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A에게 B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가 아니고, B가 C 아파트를 D에게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B가 A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보통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에 주리라는 신뢰에 기해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이런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례 법리에 따라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B가 또다른 매수자인 D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D와의 계약은 언제든지 B가 D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가 D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나아가 B가 다시 변심하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사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반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참고로 B가 A에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그림이나 조각상과 같은 '동산'을 판 경우라면, 부동산과 달리 대법원이 동산 매도인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로 보지 않아, 매도인이 이를 이중으로 팔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참조). /법무법인 바른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슬 ▲전산운영담당관실 표진숙 ▲감사담당관실 장권철 ▲심사2담당관실 류지용 ▲역의탈세정보담당관실 김정윤 ▲법무과 김선주 ▲전자세원과 김진영 ▲법인세과 정필규 ▲자본거래관리과 김종성 ▲세원정보과 이은장 ▲세원정보과 장대복 ▲장려제신청과 심상동 ▲운영지원과 윤재갑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종복 ▲서울청 조사3국 조사과 권영명 ▲서울청 조사4국 조사과 김상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정경철 ▲중부청 운영지원과 박영건 ▲대전지방국세

청 조사국 조사관리과장 이용균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상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 이종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이승래

◆한국토지정보공사 ▲수상이사 ▲지적사업본부장 최규성 ▲경영지원본부장 김기승

◆부산일보 ▲편집국장 강윤경 ▲편집국 선임기자 이병철

부음

▲조성환(예비역 육군 대령)씨 별세, 심옥자씨 배우자상, 경호(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해

령씨 부친상, 이석현(전 MBC 라디오국 국장)씨 장인상, 박미하씨 시부상=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3410-3151

▲송중호씨 별세, 송창진(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송희정씨 부친상=15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2-3010-2236

▲김기영씨 별세, 김광진(뉴웨이브 대표)·김형진(NH투자증권 이사)씨 부친상, 허진태(한국갤럽 이사)씨 장인상=15일 오전 4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www.pdna.co.kr

사랑한다면 동안을 선물하세요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촉촉한 동안피부, 비밀은 DNA 피디엔에이 크림 & 세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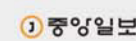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시내 한복판에 수소충전소...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소차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허용
저위험 드론 승인없이 비행토록
고도범위 확대 등 비행방안 마련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총 171건의 현장으로 가운데 89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남은 82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신산업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을 비롯해 드론 비행승인 기간 연장, 의약품인 치약제품의 화장품류 분류, 콧속 마스크의 의약품 등록기준 신설 등 12건은 기존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 내

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

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천㎡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도 편리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안도 내놓았다.

IoT(사물인터넷)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3D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차량등록정보 중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유종' 정보제공으로 주유소에서 혼용방지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학교에서 학습콘텐츠 사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보안 수준만 유지하도록 완화한다.

또,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종이 안에서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인증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 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SKT, SK와이브스 한국시리즈 우승 '축승회' 개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 1층에서 열린 'SK와이브스 우승 기념행사'에서 SK텔레콤 박정호 CEO(왼쪽부터)와 류준열 SK와이브스 사장, 힐만 감독, 이재원 선수가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지역 상권, 빅데이터로 한눈에"

'상권영향분석서비스' 정식 개시

성남시의 2018년 5월 기준 커피·음료 업종별 점포 당 평균 매출은 939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점포는 865만원이고, 프랜차이즈는 1,854만원이다. 주 고객은 20대 여성이며, 시간대별로 오후 1~2시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다. 여름에는 목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고, 겨울에는 금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 내용과 같이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창업환경 속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가 지역 상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처럼 매월 6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상권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16일부

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간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보분석 인프라'다.

이 서비스는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도내 31개 시군 골목상권 정보 관련, 14종의 공공데이터와 4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과 고도화된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업종 등 경영개선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농식품부

내년부터 무·배추 등도 '농작물재해 보험'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과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 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팔,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친환경' 전기버스 9대 서울 도심 달린다

1711번 노선 9대 운행
연내 29대 추가 투입

전기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도심을 관통하는 1711번 노선에 전기버스 9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연내 3개 노선(1711, 3413, 6514)에 29대의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전기버스는 기존 차량 만료에 따른 대·폐차 수요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다.

국민대에서 공덕동을 오가는 1711번 노선에는 이날 전기버스 1대를 우선 투입한 후 20일까지 9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전기버스 운행 간격은 8~35분이다. 시는 해당 버스가 지나는 버스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달라기에 전기버스 도착 시간을 표출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



전기버스 모습. /서울시

다. 간선노선과 지선노선의 외관 디자인 색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차량 상단 하얀 바탕의 라인에 '친환경 전기버스'를 표기해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버스는 주행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CNG버스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3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벤츠코리아 사장, 서울시 명예시민 선정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15일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서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갖춘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업 시민의 대표이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22명을 선정했으며,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혹은 총 거주 5년 이상인 외국인이나 시 주요 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했거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귀감이 되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 2015년 9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한 실라키스 사장은 벤츠를 수입업체 리더로 이끌며 기록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한국 고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이뤘다. 모범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 점과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 조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산업] BMW리콜 속전속결 식달새 77% 넘어 06



Life

[유통] 신세계백 영캐주얼 매장에 화장품 편집숍 오픈 10



생리식염수로 시작한 ‘국민 이온음료’ 물보다 더 친숙한, 일상의 건조함 채우는 ‘블루’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1987년 출시된 포카리스웨트는 우리나라 이온음료의 대명사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이온음료 시장에서 포카리스웨트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올해 3분기 전체 이온음료 시장에서 포카리스웨트는 약 4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포카리스웨트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상의 건조함을 수분으로 채우며, 소비자에게 물보다 더 가깝고 친숙한 음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음료

포카리스웨트의 탄생 시초는 생리식염수다. 생리식염수를 물처럼 마신다면 간편하게 수분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포카리스웨트를 만들었다. 포카리스웨트는 기존 음료시장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음료였다. 체액과 가까운 농도로 조성된 전해질(나트륨·칼륨·칼슘·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로 신속하게 수분과 이온을 보충해준다. 형형색색의 예쁜 색깔 없이 희뿌연 색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식염수에서 비롯된 이온음료 본연의 취지를 담아 건강을 위해 색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카리스웨트는 단순한 갈증 해소 차원을 넘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신체 수분 및 이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기능성 음료다. 음주 시 알코올에 의한 이뇨 작용으로 소변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칫 일시적인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카리스웨트는 체내 수분 전해질 균형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 준다.

또한 열중증 환자에게 생기는 어지러움과 무기력증, 실신을 막을 수 있고, 운동 선수들의 운동 능력 저하를 방지해 줄 수 있다. 땀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닌 나트륨과 칼륨 등 이온이 포함된 수분이다. 물만 마실 경우 우리 몸은 자발적 탈수 현상(목마름은 멈추지만 낮아진 체액의 염분 농도를 원래대로 맞추기 위해 수분이 다시 배출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몸이 원하는 이온을 공급하여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포카리스웨트가 필요한 이유다.

◆생소한 맛으로 어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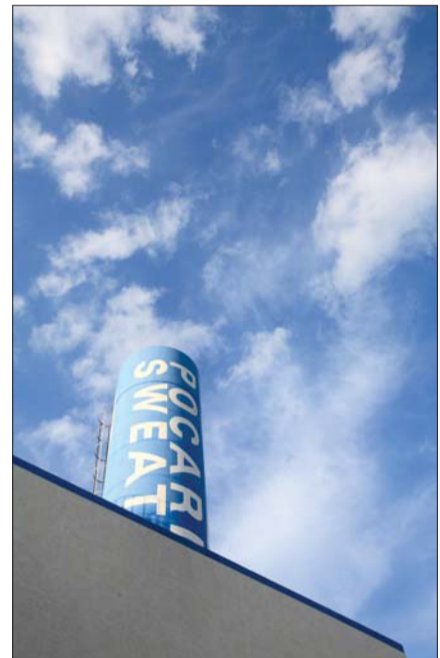
포카리스웨트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기 어려웠다. 기존 청량음료와는 달리 단맛이 적어 생소한 맛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대적인 시음 행사가 기획됐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약 1만2000명에 이르는 국가대표 선수, 경찰,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20일 동안 대대적인 샘플링을 실시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에도 포카리스웨트를 시용하고 평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후 반응은 점차 달라졌다. ‘마실수록 몸이 원한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포카리스웨트 모델 트와이스.



동아오츠카 칠서공장.



포카리스웨트 풋살하이어로스.

/동아오츠카

이온음료 시장 약 40% 점유율 갈증 해소에 수분·이온 충전도

첫 출시 이후 호응 얻기 어려워 서울 아시안게임서 대대적 샘플링 시음·평가유도로 폭발적 인기

블루 마케팅으로 제품 각인시켜 ‘트와이스’ 발탁해 10대에도 인기

또한, 건국 후 최대 행사인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며 포카리스웨트를 마시는 모습이 노출되며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나타냈다. 발매 1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포카리스웨트는 월 200만 캔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국내 이온음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기록이었다.

◆국내 스포츠와 협업

포카리스웨트는 발매 이전부터 아시아 수영 스타 최윤희 선수를 모델로 선정해 스포츠 드링크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이처럼 포카리스웨트는 특히 운동 전후에 마시면 좋은 장점이 있는 까닭에 국내 스포츠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1987년 ‘포카리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 프로야구(KBO), 프로배구(KOVO), 프로농구(WKBL), 마라톤 등 다양한 스포츠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또한, 6회 연속 아시안게임의 공식 음료로 활동하며 글로벌 스포츠음료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카리스웨트 퓨처스 3X3 농구대회’, ‘포카리스웨트 풋살하이어로스’ 개최 및 유소년 농구 캠프 및 대회 후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스포츠 기회 확대와 스포츠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블루 마케팅 전략

포카리스웨트를 대표하는 색깔은 파란색과 흰색이다. 하지만 포카리스웨트 출시 이전의 파란색은 식품업계에서는 입맛을 떨어뜨리는 색이라고 해 디자인에 사용하지 않는 색이었다. 포카리스웨트의 파란색은 업계의 불문율을 깨고 오히려 청량감을 부각하면서 오늘날 스포츠음료의 대표적인 이미지 색으로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3년에 ‘바다는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포카리스웨트 TV 광고는 소비자에게 푸른 이미지의 포카리스웨트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광고는 소비자와 평가기관으로부터 꾸준한 찬사를 받으며 MCA 광고대상을 받기도 했다.

포카리스웨트만의 블루 마케팅을 만드는 데에는 포카리모델을 빼놓을 수 없다. 청순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포카리모델은 오늘날 포카리스웨트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김혜수, 고현정, 심은하, 손예진, 한지민 등 당시 모델들이 크게 활약한 TV 광고는 포카리스웨트의 CM송도 대중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다.

2017년에는 포카리스웨트 발매 30주년을 맞아 파격적으로 아이돌그룹 ‘트와이스’를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MOVE, LIVE, SWEAT’를 콘셉트로 포카리스웨트 특유의 청순함에 더해 10대를 대상으로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이후 2년 연속 트와이스와 함께하며 다소 취약했던 10대층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진행된 트와이스 굿즈 선물 이벤트의 포카리스웨트 구매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포카리스웨트는 국내 최초, 시장 점유율 1위 이온음료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도전 중이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전파한 포카리스웨트 블루로드 캠페인과 업계 최초로 페트와 비닐을 쉽게 분리되게 제작한 블루라벨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